

보도시점

배 포 시

배포 2024. 5. 5.(일) 17:30

최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참석 및 ADB 총재 면담

-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ADB 발전방향 제언(비즈니스 세션)
- EDCF-ADB 협조융자 대폭 확대, 신설 다자기금 참여 서명(ADB 총재 면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4(토)~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와 면담을 가지고, EDCF-ADB 협조융자 갱신 MOU와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 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ADB와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 Climate and Sustainability Project Preparatory Fund: 중앙아 지역 대규모 인프라 및 기후변화 대응 투자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3년간 3백만불 지원 예정)

〈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 〉

최 부총리는 5.5일(일) 제57차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세션 중 거버너 연설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경제 및 개발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ADB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분쟁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관련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첫째, ADB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ADB 전략 2030*의 유연하고 반응성 높은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라 AD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MDB)에게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ADB가 기후대응, 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이러한 취지에서 중앙아시아 기후변화대응 준비지원 기금(CSPPF)에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등 ADB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18.7월 발표된 ADB 기관 전략으로 "풍요롭고(prosperous) 포용적(inclusive)이며 복원력(resilient) 있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아태지역"이라는 비전 제시

둘째, 이러한 전략방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DB의 1,000억불 추가 대출여력 확보를 환영하며, 14차 아시아개발기금(ADF-14) 재원보충회의 결과 50억불 상당의 성공적인 재원 조성을 축하했다. 한국은 EDCF-ADB 협조융자 규모를 약 3배로 대폭 상향하는 등 ADB의 재원확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내부조직개혁인 ADB의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에 따른 ADB의 분권화 노력에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ADB는 작년 ADB 연차총회를 통해 개도국 기후기술 네트워크 허브를 지향하는 **新 지역사무소 모델인 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ADB와 다른 회원국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 '23.6월 실시된 ADB 조직운영 개혁방안으로 지식 경영·공유 강화를 위해 i)종합적인 조직개편 실시, ii)프로젝트 전문역량 통합·집중, iii)중점 개도국 사업현장 중시 등 추진

** ADB-Korea Climate Technology **Hub(K-Hub)**: 개도국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 기후기술 및 전문가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ADB 한국사무소

〈 ADB 총재 면담 결과 〉

한편, 최 부총리는 ADB 비즈니스세션에 앞서 5.4일(토)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ADB 총재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EDCF-ADB 협조융자 MOU 갱신과 ADB의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한국에서 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ADB와의 협력관계가 총재 취임 후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DCF-ADB 협조융자를 기존 7억불('21.5~'24.5)에서 20억불('24.5~'27.5)로 대폭 상향하여 디지털, 그린 등 확대되는 개발수요에 ADB와 적극 대응하고,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은 지속적으로 ADB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14차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 한국이 적극 참여(기여율 2.89%(7위))해준 것과 EDCF 협조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다자기금에도 설립멤버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한국인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ADB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아태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 핀테크 세미나 〉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3 핀테크 작업반 활동으로, 5.4일(토)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소개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ADB >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 EDCF >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8770)
		담당자	사무관	박현석	(dal tn20@korea.kr)
< 핀테크 세미나 >	국제 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김태호	(rlaxogh0303@korea.kr)

